

말씀의 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로마서 8:37~39>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받을 존재,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습니다. 단순한 애완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단순히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피조물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할 줄 아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인격적으로 그 사랑에 고마워하며 표현할 줄도 알고 하나님과 감정과 생각, 느낌의 깊은 것까지도 나눌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진 친구 같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인류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지 못한 공허감으로 인해 인류에는 인격적, 사회적 문제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채우지 못하는 심령은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문제를 만나도 두렵고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가슴으로 와 닿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래와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모된 우리의 지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하면서 "맛아! 나한테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예배시간마다 "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풍성히 채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요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얻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의 상황은 사역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훼방과 협박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다해 사역하며 얻은 믿음의 제자들이 이단애에 넘어가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되고... 수없는 배신을 당했던 시기였습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에 의한 환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 대표자들을 그리스도안의 형제로 받아들여 줄 것인가(롬 15:3-32)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롬 8:31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세상 앞에 건강합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알려주는 시간이며,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수 있는 사랑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이 아닌 경험과 실제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신 1: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은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그 힘겨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바로의 궁에 있음보다 광야에서의 시간을 더욱 좋아했다는 이유가 이 때문일 것입니다(히11). 그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있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전혀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고 메마르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인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과 같고 마치 이민 땅에서의 딱딱한 삶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안아서 이 죽음의 광야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는다는 표현은 결코 지식으로 할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의 푸근함을 심령으로, 감동으로, 실제로 느끼고 누리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같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팔로 안아주시심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사모하셔야 합니다! 감동과 가슴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 그리고 그 따스함 말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안아주시심을 실제 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느끼지도 믿지도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 1:32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와 똑같은 길을 경험하고 왔는데, 같은 광야 길을 걸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수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속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 눈으로 보고 살았으면서도 그들에게는 이것이 이론이요 지식이요, 그저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시심,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처럼 실제로 누리거나 느끼지 못하고 살다 보니 항상 불만과 불평이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늘 문제앞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두려움, 염려, 원망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은혜를 받지 못한 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과 실제의 차이인 것입니다. 많은 현대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가슴으로 채우고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 33:27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모세는 신명기의 시작처럼,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안아주시심을 고백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안아주시심에 대한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각박하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 가십시오. 사랑 많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15. 9. 13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5. 9. 20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성 경 봉 독 ----- 사사기 7장 9절~15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보이는 현실보다 들리는 진리로 살기”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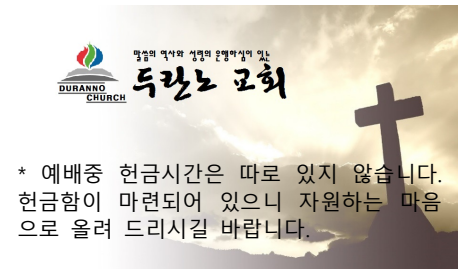
교제의 시간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7:30



* 예배중 헌금시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